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누락 광고 : 총회에서 주관하는 통합-합동 연합기도회 참석 협조. 8월 10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총회 자료 : 우리 주변의 이단 기업 및 기관 소개 프린트 자료 및 책자 참조.

주제: 삶 제목 :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이사야 61장 1-11절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7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뒷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

들에게 갈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걸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돌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사61:1-11)

오늘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 것을 원하신다. 물론 획일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1.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하신다**.

–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교리적인 이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자신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연구하며, 부르짖으며, 어떤 사람은 항상 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지를 주의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그 경향성은 모두 다양하기 때문이다.)

– 1절의 주어는 이사야일수도 있고, 예수님이일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회당에서 낭송하신 다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다.

–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하셨기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셈이다.

– 기독교인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잘 할 수 있

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후에는 육체로 마치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하라.)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다.(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므로. 이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 모두가 성직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직을 도우라는 뜻.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니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란,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되거나 부요하나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자들이 더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난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로 인해서 삶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가난한 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많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우 복이 된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보냄을 받으라. 그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고쳐 주어라. 주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그 마음을 치유한다.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고침을 받는다.

–물론 치유는 단계가 있다. 상처를 싸매는 것으로 절반 이상은 치유된다. 그것이 치유의 전부는 아니나, 사람들은 나머지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 있다.

–복음을 더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치유를 받는다. 그리고 세계관까지 치유를 받아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 포로된 자는 누군가에게 또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말한다. 마치 태양의 궤도에 들어선 행성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그의 결박이 풀어진다.
- 갇힌 자란 스스로를 가두는 자를 말하는데, 이 또한 예수를 만나면서 풀어지게 된다. 스스로 그 결박을 푸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스스로가 강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 자기의 포로가 된다.
- 이 은혜는 세계관이 바뀌면서 자기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다.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소망**을 주어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마귀에게 대하여 보복이 될 것이다.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예배당에서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 자신에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회복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 자신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말한다.
- 교회생활을 통해서 헐링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하다.
- 시온에서 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해석하면 된다.
-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라는 뜻.
- 오늘날도 교회는 치유전문기관이다. 통전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하나님은 황폐하였던 곳을 잊지 않으신다. 새롭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곳을 일으키신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신다.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지역을 새롭게 하신다.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7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뜻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이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영광을 얻을 것이다.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뜻을 받아 즐거워 할 것이다.

8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모든 것을 은혜롭고 정의롭게 처리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었다.

–우리가 정의를 힘써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실 것이다.

–정의를 행할 때 힘써 행하자. 은혜롭게 행하자.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었다. 온유함으로 행하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

이 되었으나, 그러나 힘써야 할 부분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삶 제목: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36절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8:31-36)

32절이 핵심이나, 32절은 31절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31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

–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일거수 일투족을 본받아 행하는 것.

– 제자가 되는 것은 몸으로 배우는 것. 쿵푸.

32절;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진리가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면 우리 행동의 원리가 깨달아진다.

– 흔히 스스로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자기 생각으로 정리했다는 것. 그것은 제자가 아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행동해도 스승이 그 행동을 교정할 때 그는 자기가 깨우친 것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

– 스스로 깨우쳤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본 모습이기 보다는 자기의 그물망에 진리가 걸려든 것이다. 어느 순간 그물 사이로 빠져 나가고 그물망에 물어있는 진리의 흔적만 있을 것이다.

–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내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뜻.